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24개 국내외서 1조7000억원대 도박자금 거래혐의

1조7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7000억원대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이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에서 거액의 도박자금을 걸고 도박을 한 황모(34)씨 등 130여명도 불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24개 국내·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1조763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받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해외와 국내로 나눠 개설하고 중간 관리자와 자금세탁, 사이트 관리, 인출, 흥

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팔로워를 다수 거느린 인기 SNS 계정에 5만원권 현금 다발과 금괴 등이 찍힌 사진을 게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정상적으로 법인 등록을 마친 포인트 관리 대행업체와 공모해 도박자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고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 서비스 가상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도박사이트 회원 중에는 미성년자와 대기업·공사 직원,



8일 익산경찰서 직원들이 1조70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적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약사,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국·내외 불법 도박사이트에 흘러들어 간 정확한

도박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사이트 운영자 정모(28)씨 등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김영재 기자

이한수 前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공직선거법(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언론매수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내부고발자에 대해 경비를 횡령하고, 포상금을 노린 나쁜 사람이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54)에게 징역 8월,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주재기자 B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27만2750만원씩을 추징토록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9~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A씨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건소, 홍역 주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5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보건소에 따르면, 홍역은 해외여행 중 다양한 상황에서 노출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기 때문에 해외여행 전 사전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발열 및 발진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입국 시 발열과 발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사전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발열·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격리치료(자택격리 등)에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안전해요'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종합검사 '최우수' 평가 급수과정별 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모두 적합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주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상수원인 용담호와 정수처리시설인 고산정수장, 배수지, 가정 수도꼭지 150개소 등 각 급수과정별 시료를 채취해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상수원 내에 질소(N)와 인(P), 칼륨(K) 등 영양염류의 유입이 증가하고 온도가 높고 일조량 또한 길어 녹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미생물류 및 각종 유기물질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등급이 저하돼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맑은물사업본부는 용담호 상수원수의 수질을 36개 항목까지 세밀하게 종합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5ppm으로 납과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류가 검출되지 않아 상수원 수질등급이 '1b(좋은)' 상태로 나타났다. 또, 녹조현상 진행 상태를 알아보는 '클로로필' 항목 실험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아 용담호가 맑고 깨끗한 청정 1급수의 수질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산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정수

(수돗물)도 59개 항목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독제인 잔류염소 농도의 경우 최대 투입 허용기준치인 4ppm의 5분의 1 수준인 0.8ppm으로 낮게 나타나, 최적의 염소투입으로 수돗물 음용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염소냄새를 줄여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정에 수돗물이 도달하기까지 노후된 배·급수관을 통해 발생할 수 있

는 2차 수질오염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신청기구와 표본추출 기구 등 150개소를 조사한 수도꼭지수 수질검사에서도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시는 이번 수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 수돗물 브랜드인 '전주얼수'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용수임을 알리기 위해 9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한옥마을 관광객 및 전주시민을 상대로 전주얼수 시음회 및 브라인드 테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형원 전주시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전주얼수'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로 거듭나서 전주시민이 믿고 음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추석 연휴, 전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풍성'

14~18일까지 · 15일 제외

추석 연휴를 맞아 한국전통문화재단이 전주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한국전통문화재단은 추석 당일인 15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4시 등 하루 총 세 차례씩 24회에 걸쳐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당은 추석맞이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교실'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경단 만들기(14일) ▲우리밀 초코파이 만들기(16일) ▲2017년 우리가족 달력 만들기(17일) ▲한지인형 만들기(18일)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밀 초코파이(유료 5000원)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모집을 통해 참여한 2인 1조 가족 4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도 전통한지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한지문화체험실에서는 ▲전통탈 만들기 ▲한지 마라카스 체험을, 한지제조체험실에서는 ▲색동 한지뜨기 체험이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이 기간 센터 1층 로비에서는 공중무후, 고리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함께 운영된다.

어린이와 노인을 동반한 가족은 누

구나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 단 한지 공예체험의 경우 가족 당 1개 이상 초과 시 유료로 진행된다.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재단 원장은 "풍요와 기쁨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주시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마련했다"며 "추석 연휴기간 많은 분들이 전당을 찾아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재단 사무국 경영지원팀(063-281-1560) 또는 한지산업지원센터(063-281-15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명물 트롤리버스 타세요

추석 맞아 13~15일 무료운행 귀성객·관광객 위해 3일간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트롤리 명품 시내버스가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운행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동물원과 전주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한옥마을, 치명자산을 운행하는 전주시내버스 1000번 명품버스를 본격적인 추석 귀성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도 명품시내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물원(전주역)시외고속터미널(한옥마을)치명자산을 약 25분~55분 간격으로 1일 왕복 4회 운행된다. 또, 명품 버스가들은 친절 멘토와 탑승객들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는 등 연휴를 맞아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해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료 운행은 명품시내버

스를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 4개 회사 민속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들에게 달라진 전주 시내버스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무료 운행에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시는 명품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무료운행기간 홍보와 탑승객에 대한 추석 인사말, 추석연휴기간 동안 각종 행사안내 등의 교육을 통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친절하고 정다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먼저 이런 제안을 해주신 시내버스 업체에 감사를 드린다. 무료 운행을 통해 귀성객들이 고향을 방문해 후덕한 전주의 인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면서 "명품시내버스 외에도 명절기간 동안 운행할 다른 버스들도 철저히 점검해 대중교통이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